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실명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5. 31.(월)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현장 연계와 소통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5월 말 2차 공모까지 9천여 명 신청, 연말까지 1만 명 지원 예정 -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30일(일) 자 <‘탁상행정’으로 현장서 외면받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도 1만 명을 기대했으나 신청 인원은 6,121명에 그쳤으며,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내건 탓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실내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차 추경으로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만 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며, 이는 근로 및 사회보험 관련 제 법령과 실내체육시설업계 상황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입니다. 또한 요가 등 자유계약(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까지 진행한 1차 고용지원 사업 공모에는 6,121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5,950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공모*를 통해 누적 9천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6월 중 3차 공모를 통해 목표한 1만 명을 모두 선정하고 연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 5월 30일(일) 기준, 누적 8,816명 신청